

Style 조선일보

APRIL 2019
vol.187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BOTTEGA VENETA

AKIRA
ACTOR

Ralph Lauren

RALPHLAUREN.COM





촬영: NICK KNIGHT

BURBERRY
LONDON ENGLAND

SUBLIMAGE

L'ESSENCE LUMIÈRE

CHANEL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 궁극의 광채 세럼

피부 속까지 빛으로 채우는 궁극의 광채 세럼. 샤넬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 고결한 꽃, 안틸리스의 발견으로 열리는 스킨케어의 새로운 지평. 알프스의 거친 환경 속 빛으로부터 힘을 얻어 생존하는 식물, 안틸리스(ANTHYLLIS)를 담은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의 화이트닝 포뮬러는 피부의 칙칙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주고, 환경적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바닐라 플래니폴리아 워터의 피부 항산화 효과가 더해져 강력해진 포뮬러로 피부는 더 맑게 빛나고, 본연의 광채가 깨어나 투명한 궁극의 광채로 빛이 납니다.

샤넬 수블리마지 - 다시 찾는 내 안의 아름다움.

CH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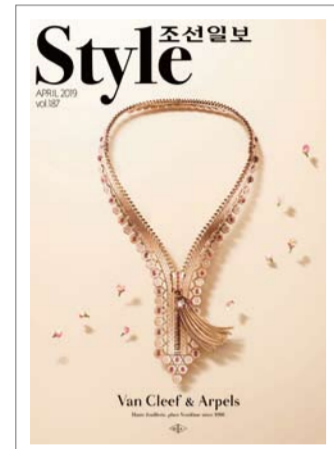


COLLECTION
Women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블랑팡 직영부티크 - 갤러리아 EAST B1층 (02-6905-3367)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층 (02-3213-2261)
신세계백화점 본점 B1층 (02-310-5295)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02-3467-8426)
공식지정판매처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층 드로어씨클 (051-745-1350) · 신라면세점 서울점 2층 (02-2230-3868)
신라면세점 제주점 2층 (064-710-7345) ·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3층 (02-6288-0851)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9층 (02-6370-4083) · 현대면세점 8층 (02-2142-6126)



MONTBLANC

- 16 **SELECTION for her** 편안한 불기운을 만끽하게 해줄 과감한 컬러와 프린트의 향연.
- 18 **SELECTION for him** 평범한 룩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채로운 패턴 아이템 제안.
- 20 **CAO FEI** 동시대 예술가를 접하고 만나는 데 따른 장점은 아마도 우리가 비슷하게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을 바라보고 담아내는 시각과 감성에 공감할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다른 국적과 나이대의 인물일지라도 반드시 공명의 정도가 떨어지는 않다. 또 아티스트의 상징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묘미가 아닐까 싶다. 우연한 스튜디오 탐방을 계기로 알게 된 중국 현대미술 작가 차오 페이(Cao Fei)의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성장 기도는 그 같은 행운을 느끼게 해주는 여정이다. 문화대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 중 가장 주목 받는 미디어 아티스트인 그녀의 작품 세계는 뉴욕 모마(MoMA) PS1, 뒤셀도르프 K21, 홍콩 타이먼 센터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개인전으로 선보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데이라이프 권역인 시대에 현대인의 불안감을 여러 작가를 통해 조명한 기획전 <불온한 데이라이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2 **TIMELESS GRACE**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향한 헌사, 여성을 위한 타임리스 워치.
- 24 **2019 S/S TREND REPORT**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 형태는 보다 대담해졌고 색은 우아해졌다. 수공예에 집중한 에스닉한 장식과 스포티한 요소를 세련되게 입는 방법을 배워보자. 주목해야 할 트렌드 열 가지를 소개한다.
- 26 **A SIMPLE MAN** 복고풍 프린트와 오버사이즈, 그리고 신선한 컬러의 조합. 이번 시즌 남성복은 심플함 속 스타일리스함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 34 **TRENCH LOVER** 지적인 분위기와 실용적인 면모를 갖춘 트렌치코트. 불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금이 이말로 트렌치코트를 제대로 입을 수 있는 때다.
- 35 **THE NEW IT BAG** 리카르도 티시를 영감한 이후부터 배버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카이브에 보다 충실하고 현대적으로 변화한 배버리의 새로운 모노그램과 첫 번째 시그니처 백을 소개한다. 바로 TB다.
- 36 **TIME TO RELAX** 과도한 피로, 스트레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당신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할 뷰티 아이템.
- 37 **FRESH PALETTE** 울퉁,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기운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이 컬러들에 주목할 것.
- 38 **EDITOR'S PICK**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스타일 조선일보>가 제안하는 뷰티 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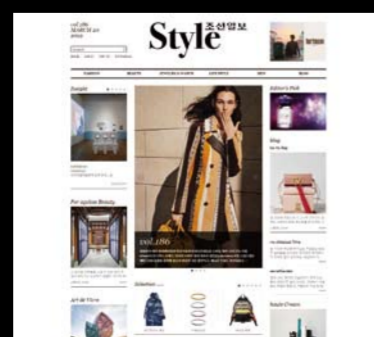


Creating new heights.
새로운 몽블랑 스타 레거시 폴 캘린더.

montblanc.com

Style 조선일보

Issue.187 April 2019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캘린더,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Jewel
BRILLIANCE
IN APRIL**

'정복할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다마스(adamas)에서
유래한 4월의 탄생석,
다이아몬드.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애종의 모든 주얼리 제작 노하우를 반영한 베를리 다이아몬드 컬렉션 네크리스 8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브랜드를 상징하는 T 문양을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티파니 T 트루 링 4백10만원대 **티파니**, 하이 주얼리에만 사용하는 오픈워크 기술을 적용해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브로치 또는 네크리스 패턴으로도 착용할 수 있는 세팅 보행 중 네크리스 3천만원대 **부세온**, 빗방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플뤼드 가르피에 네크리스 3천만원대 **카르티에**, 밤을 상상사해 장식 또는 부적으로 사용하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찬사를 표현한 세르펜티 스킨 아이리밍 5천1백만원대 **볼가리**, 에디터 **장리온**

**Fashion
AROUND
YOUR WAIST**

허리 위에서 푹푹 튀는
존재감을 발산하며 스타일의
중심을 잡아줄 벨트 백 3.

(위부터) 다이아몬드 패턴의 쿼팅 디테일을
다한 패일 핑크 컬러 미니 벨트 백, 18X10cm,
1백35만원 **지방시**, 토마스 바바리 모노그램
클래스프가 돋보이는 구조적인 디자인의
송아지 가죽 TB 벨트 백, 17X12.5cm,
1백65만원 **바바리**, 본디자인 골드 컬러의 메탈
장식으로 맛을 낸 다울 오블리크 자카르 패브릭
소재의 세틀 클러치 벨트 백, 20X17cm,
1백70만원 **디올**, 에디터 **아헤미**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Focus
이것은 전시인가, 쇼핑인가? <테이크 미 홈>전, <광주요 생활미감展>

아트와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오브제나 리빙용품 등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줄 각종 작
품이나 물건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바로 구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 강남구 플랫포엠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에서는 <테이크 미 홈(Take Me Home)>
전시가 진행 중이다. 사람들이 미술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
을 전시하고 유통하는 신생 독립 플랫폼들을 소개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주도해 영리와
비영리, 아트와 디자인, 제도권과 비제도권 등 기존의 범주에 얽매이지 않고 작고 세련
화된 공간을 운영하며 이 생태계의 다양한 생산자들과 협업하는 자생적 움직임을 반영
하는 플랫폼들로, 이번 전시에서는 소소(SOSHO), 아티스트 프루프(Artist Proof), 팩
(PACK), 팩토리 2(FACTORY 2), 카스코(CASUKO), 이렇게 다섯 팀을 선보였다. 전
시장에 들어사면 동그란 모양의 빨간 스티커가 들어 있는 작은 책자를 받게 되는데, 여기
에는 각 팀의 이름 첫 자를 딴 알파벳과 숫자가 적힌 빈 동그라미가 가득하다. 마음에 드
는 작품이 눈에 띄면 스티커를 붙여 찍혀두면 된다. 거울, 조명, 티셔츠, 카펫, 핀화, 사
진, 조각 등 다채로운 '후보군'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5월 26일까지. 도자기 브랜드로 유
명한 광주요가 1년에 한 번 펼쳐는 도자 축제 <광주요 생활미감展>도 주목할 만하다. 오
랫동안 기화한 신제품과 리빙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 제품 등 다양한 볼거리와 각테일
시음 등 체험 거리를 선사하는 전시이자 쇼핑 행사로, 큰 폭의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이천 센터장이 아니라 서울 강남역 근처의 모노스페이스에서 진행
하기로 해 접근성을 높였다. 오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에디터 고성연**



테이크 미 홈



광주요

**Beauty
SWEETEN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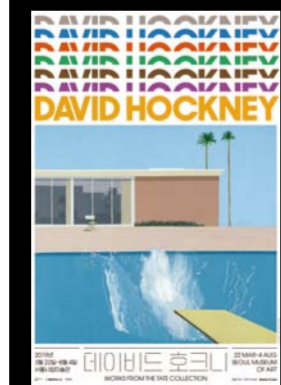
꽃처럼 알록달록한 캔디 컬러 네일을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다.
손끝에 찾아온 기분 좋은 봄.

(위부터) '상테카미 네일 슈어' 북극의 오로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초미세 입자
필이 독특한 반짝임을 지속시키는데, 여덟 가지 유해 성분을 배제한 비건 포뮬러로
손톱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금빛 그린 컬러 베가(12ml 4만1천원), '랑
콜 르 베르니' 스텝글 네일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컬러 위에 톱 코트로
도 사용해 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 입자가 굵은 스텝글 네일 #110(10ml 3만2천원
대), '헤라 네일 에나멜 컬러' 도통하게 오래 지속되는 선명한 컬러가 매력적이다. 도
시 여성 룩의 완성은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슬로건 아래 도시의 컬러를 담았다. #2 서
올리스타(10ml 2만2천원대), '샤벨 르 베르니' 바이오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로 한층
강화된 새로운 포뮬러가 손톱까지 보호해준다. 샤벨의 아이코닉한 스타일에서 영감
받은 다양한 컬러 중 풍부한 레드 컬러가 눈에 띄는 #500 루주 에센스(13ml 3만5
천원), '플 로드 네일 락' 풍부한 컬러감과 놀라운 광택감이 특징이다. 고기능성 포
뮬러에 유연한 코팅을 더해 커버력과 지속성을 높였다. 16가지 세트 중 #8 아프리
칸 바이올렛(12ml 4만5천원), 에디터 **장리온**



Exhibition
올해의 블록버스터 전시로 꼽히는 <데이비드 호크니>전, 반응은?

둘째 가리던 사를 정도도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지난해 그
림 한 장(예술가의 초상)에 1천여원이 넘는 경매가로 '생존 작가 최고'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인물,
풍경 등을 주제로 유화, 이크릴, 드로잉, 사진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거듭 변화를 추구해
온 작품 세계에 대한 전문가 평도 우호적인 편이라 올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개인전이 열
린다는 소식에 한껏 기대를 품어온 이들이 많을 듯하다. 더구나 '아시아 첫 대규모 개인전'이라는 수식어 때문
에 살릴 자수가 자연스레 높아졌다. 지난 3월 22일 막을 올린 이 전시에는 그의 미국인 영국 태생 미술관
소장품을 위시해 다른 기관들에서 공수한 작품 등 총 1백33점을 선보였다. 기대가 컸던 탓인지 반응은 엇갈
린다. '말의 움직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수영장 시리즈 중 해·나·인·더·큰·창방', 2인 초상 '클라크 부
부와 피시', '외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 같은 대표작도 만나볼 수 있던 하지만, 호크니의 폭넓은 작품 스펙트
럼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인 듯한 느낌이 든다(특히 2017년부터 작가 탄생 80주년을 맞아 구미 지역에서
열린 회고전을 운 좋게 접했다면 더욱 그럴 듯하다). 그럼에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육안으로 감상할 기회를 놓치기는 아깝
다(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영화도 있다). 하지만 피카소의 이름을 붙였지만 좀처럼 피카소가 눈에 띄지 않는 전시, 텍스트로 도배된 듯한
느낌마저 주는 자료메이 전시 등 브랜드 가치에 비해 일행이 부족한 사례, 혹은 세계 3대 디자이너 같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수식어를 내세운
전시 등이 잇따르는 현실에 대한 생태계 차원의 자기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홈페이지 sema.seoul.go.kr 에디터 **고성연**



데이비드 호크니

Tod's Korea Inc. 02. 3448 8201





for her
Selection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하게 해줄 과감한 컬러와 프린트의 향연.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비대칭 실루엣의
실드 프린트
블라우스
2백45만원
에밀리아 푸치.

반투명의 투톤 프레임
라운드 선글라스 24만원
베디베로 by 세원 I.T.C.

편한 오렌지 컬러를 입힌
반티잔 에탈 소재 클라워
초커 1백45만원 렌디.

다채로운 기오메트릭
프린트가 돋보이는
프론트 1층 보는
스몰 키이트 체인백,
스몰 키이트 체인백,
20x12.5cm, 2백67만원
생 로랑 by 인드나
비카텔로.

잡음없는 크리스탈로 이블 아이 모티프를 장식한
하트 모양 클립 이어링 2만원 스와로브스키.

여러 겹의 골드 에탈
조각으로 이어진 '별'의
1백65만원 포파.

네 가지 다른 컬러의 가죽 조각을 배치시킨
포인트 토 로퍼 1백19만원 델포조.

얇아질러 비즈를
얹어 만든 지디올 초커
1백만원 데디.

보헤미안 스타일의
헤어밴드 23만원
비비안 웨스트우드.

밀라카이트 다이얼이 인상적인
클러치 30만원 데디. 반팔리프 이블.

스트라이프 패턴
에 벨 벨링 가격 미정
에르메스.

파리스 모티브를 프린트한
2층 장식 드레스 7백만원 데디. 불발타노.

아이코닉한 GRC 벨 프린트의 실드
가방 65만원 구비.

발등의 매들
다채로운 프린트를
준 체크 패턴 슬링백
1백19만원 지마후.

구비 02-1577-1921 델포조 02-3449-5926 반팔리프 이블 00798-852-16123 불발타노 02-2015-4653
디올 02-513-0300 비비안 웨스트우드 02-543-1713 생 로랑 by 인드나 비카텔로 02-549-5741
세원 I.T.C 02-541-7086 에르메스 02-542-6622 에밀리아 푸치 02-3479-1746 지마후 02-3443-9469
렌디 02-2056-9023 프리다 02-3442-1830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 ·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LEONARD
P A R I S

leonardparis.com



지름 41mm의 스테인
리스 골드-플라티넘을
장착한 오로라 워치 1백
49만원대 포함.

캐주얼하면서도 정교한
스타일링을 위한
3색 2톤의 패턴이
포인트.

그레이트인 고래 모티프를 프린트한 시미야노 레더 클러치.
35.5x23.5cm, 1백49만원대 포함.

빈티지 프린트 하이탑
스니커즈 90만원대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간결한 D-링
클로저를 위한
스타일링 포인트
벨트 17만원대
포스 멘.

정교한
스타일링을
위한
포인트.

그레이트인 연상시무는 화려한 프린트와
스파이더 장식이 어우러진 슬림은 1백4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익살스러운
애니멀
모티프의 내림
태그 16만원대
포스 멘.

다양한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카드 레더
워렌 브레이크아웃
52만원 루이비통.

잔잔한 패턴을 위한 프랑코 스키어
30만원대 브루넬로 쿠치넬라.

기하학 패턴이 42만원대 브리오니.

하트, 별, 나뭇잎을 활용한 프린트
프린트 1백49만원대 포함
2종 1백82.

트럼프 카드에서 영감을 얻은 워트
있는 디자인의 카드 홀더 란을
키링 47만원대 포함.

이국적인 식물 프린트 라이너 23만원대
에스.티. 듀몽 파리.

레우르 메탈 소재
광택 모티프는 키링
90만원대 포함.

- 펜디 02-514-0652
- 비버안 웨스트우드 02-543-1713
- 에스.티. 듀몽 파리 02-518-1967
- 브루넬로 쿠치넬라 02-3448-2931
-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 루이비통 02-3432-1854
- 프라다 02-3442-1830
- 디올 멘 02-513-3232
- 몽블랑 02-1670-4810
- 몽클레르 02-514-0900
- 포스 멘 02-515-4088
- 볼가리 02-2056-0172
- 브리오니 02-53274-6483
-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6905-3924

빈티지 무드의 타탄 체크 싱글브레스트 재킷 1백68만원 비버안 웨스트우드.

HUGO BOSS KOREA LTD. PHONE +82 2 2210 5100

BOSS



BOSS.COM

BOSS
HUGO BOSS

Cao F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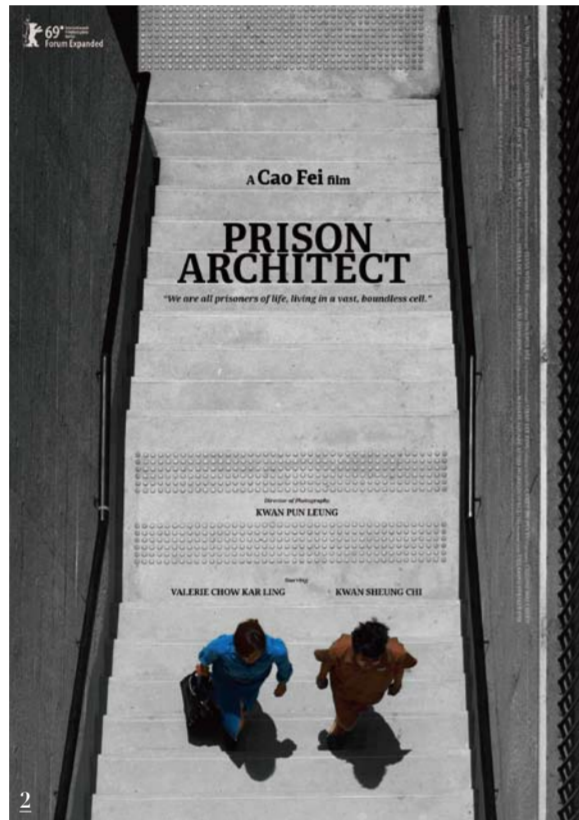
동시대 예술가를 접하고 만나는데 따른 장점은 아마도 우리가 비슷하게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을 바라보고 담아내는 시각과 감성에 공감할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다른 국적과 나이의 인물일지라도 반드시 성공의 정도가 달라지는 않다. 또 아티스트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묘미가 아닐까 싶다. 우연한 스튜디오 탐방을 계기로 알게 된 중국 현대미술 작가 차오페이(Cao Fei)의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성장 가도는 그 같은 행운을 느끼게 해주는 여정이다. 문화대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 중 가장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인 그녀의 작품 세계는 뉴욕 모마(MoMA) PSI, 뒤셀도르프 K21, 홍콩 타이켄 센터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개인전으로 선보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데이터가 권력인 시대에 현대인의 불안감을 여러 작가를 통해 조명하기 위한 <불온한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중국 소설가 위화의 글에는 모든 문학 서적을 '독초'로 규정하고 '금서'라는 낙인을 찍은 문화대혁명(1966~1976)의 상흔이 묻어나온다. 1960년생인 그는 10대 시절에 문화대혁명을 견뎌냈다. 이 고통스러운 폭풍이 잠잠해진 뒤 1980년대에 접어들자 중국은 다시 기자계를 쫓는다. 가파른 경제 성장 속에서 문화적으로도 변화의 물결이 일렁거리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졌다. 위화는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는 책에서 그 변화를 이렇게 반추했다. "우리는 멀리뛰기 경기라도 하듯 물질이 극단적으로 절핍된 시대에서 낭비가 넘치는 시대로, 정치 지상의 시대에서 금전 게임의 시대로, 본능이 억압된 시대에서 욕망이 넘쳐나는 시대로 건너 뛰었다. 이 30년이란 세월이 몸을 한번 웅크렸다가 도약하는 시간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1978년생 차오페이(Cao Fei)도 그 역동적인 시기에 자라난 '신세대'였다. 특히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강력히 추진된 정부 주도의 '도시화가 중국 주요 지역을 뒤덮으면서 그 영향권에 있던 젊은이들은 자본주의, '글로벌 문화, 디지털 등의 흐름에 휩싸였다. 덩샤오핑의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1980년대 '와둥'으로 태어난 소위 '바빙허우' 세대보다 아주 살짝 앞선 '경제선'에 걸쳐 있는 차오페이는 중국 남부 지역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인 광저우에서 자라면서 급변하는 시대 양상을 목도했고, 그 변화의 물살을 몸소 겪었다. 필자가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도 '역동과 변화의 시대'를 산 중국 현대미술 작가들을 조명하는 대규모 전시를 통해서였다. 2016년 프랑스 파리의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대대적으로 열린 중국 현대미술 전시로, 역사적 격동기를 겪은 12명의 작가들 묶은 <본토(本土)>라는 기획전과 미술관 소장품을 소개한 <컬렉션전, 이렇게 크게 2개의 전시로 나뉘었다. 전시가 열리기에 앞서 2015년 말, 일부 참여 작가들의 현지 스튜디오를 탐방하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졌는데, 차오페이도 바로 그중 하나였다. 인물이 주는 느낌이나 작업실의 분위기로 볼 때 인상에 뚜렷이 남았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든 작가가이기도 했다.

중국 문화 예술의 본산 베이징에서 만난 미디어 아트의 글로벌 성장

베이징 북쪽 차오양 구(Chao Yang District)에 자리 잡은 차오페이의 스튜디오로 가는 길은 출발부터 상쾌했다. 현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1년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게 축복받은' 날서 덕분이었다. 먼지 한 톨 없는 듯 깨끗한 대기 속에서 '짹한' 느낌의 햇살이 쌀쌀한 기운을 달래준 데다, 파랗고 맑은 하늘까지... 이제 미세 먼지 가득한 우리네 현실에서도 종종 그리워하게 된 어느 예쁜 날, 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짧은 기장의 갈색 단발을 한 차오페이가 살짝 수줍은 표정으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방담단을 맞이했다. 언뜻 보기에 호기심이 절로 솟구치는 독특한 면모의 날찍한 공간이 펼쳐졌다. 1층은 아래로 반쯤 연녹색으로 칠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중간쯤 커다랗고 고풍스러운 거울이 걸려 있고, 그 옆에 있는 육중한 고풍색 문에는 동그란 금속성 장이 무늬를 그리며 박혀 있었다. 복도 끝자락에는 빨간 칠을 한 철제 문도 자리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극장을 연상시켰다. "실제로 극장으로 쓰인 낡은 건물을 1980년대 스타일로 다시 꾸민 거예요." 아주 능숙하게 지는 않아도 영어로 토박이와 말하는 차오페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색다른 화려한 상투리에, 옷 여러 벌을 걸 수 있도록 문어발처럼 짝퉁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일자로 접을 수 있는 빈티지 옷걸이 등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공간의 구성 요소들이 시선을 잡아끌었다. 그러던 중 짧은 사다리형 계단을 몇 걸음 올라가면 나오는, 콘크리트 벽으로 된 '오픈 다락방' 같은 작은 공간도 눈에 띄었다.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커리어를 말해주는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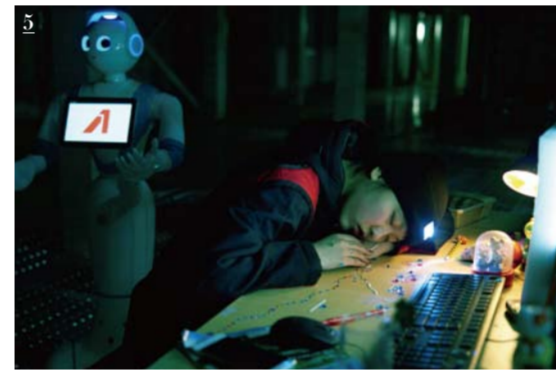
록과 책자, 신문 등 각종 자료가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아이 엄마이기도 하지만, 30대 후반으로 보기에는 꽤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녀가 상당히 풍부한 창조적 여정을 걸어왔음을 짐작케 하는 '서거(書架)'였다. 당시에도 중국 현대미술의 지형을 새롭게 수놓고 있는 '차세대 글로벌 스타'라는 수식어를 누리던 차오페이는 실제로 2001년 미술학교를 졸업한 이래 국내외에서 열린 다양한 전시가 활발하게 참가하면서 열정적으로 달려왔다.

변화의 급물살에 휩쓸린 중국의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영상에 담아내다

아마도 지하 공간이었던 듯하다. 이날 우리는 한쪽 벽에 큰 스크린이 설치된 어두운 방에서 차오페이의 미디어 작품 몇 편을 작가의 짙막한 설명과 함께 감상하는 기회도 가졌다. 물론 새로운 작품 세계를 대한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만 해도 멀티미디어 작품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영화는 웬만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섭렵하는 잡식성인데도 미디어 아트에는 다분히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다). 그런데 차오페이의 영상 작품은 시선을 고정시키고 궁극증을 일깨우는, 묘하게 참신한 매력이었다. 예컨대 2006년 작품인 '힙합(Hip Hop)'은 일단 신나는 리듬으로 어깨를 들쭉거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고풍 광저우를 배경으

사진: 타이켄 센터(Tai Kwun, Centre for Heritage & Arts), 차오페이의 스튜디오(Cao Fei Studio). Courtesy of Cao Fei and Vilamin Creative Space

로 한 이 작품에서 공사판의 인부, 트레이닝복을 입은 귀여운 꼬마, 완장을 두른 할머니, 제복을 입은 성인 남성 등 다양한 인물들이 저마다의 몸짓으로 혼합 춤을 추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유발한다. 사실 차오페이의 작품 중 이처럼 마냥 경쾌한 경우는 별로 없다.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체성을 찾기 힘들어하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실재와 가상의 경계를 종종 흐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낸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도시의 빈곤한 노동계급 가정에서 만화나 게임 캐릭터로 변신을 거듭하는 '코스프레에 빠진 젊은이'들을 비춘 '코스플레이어(Cosplayers)'라는 2004년 작품(중국 현대미술계가 차오페이를 처음 주목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의 인터뷰와 퍼포먼스를 결집한 사회 참여적 프로젝트 '누구의 유토피아인가?'(2006), '유토피아'를 배경으로 아바타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기반의 'RBM 시티'(2007) 작품(뉴욕 구겐하임에 소장되는 영예를 안겨줬다) 등이 있다. 그런데 잔잔한 메시지와 비극적인 분위기, 혹은 풍자를 담은 작품이더라도 차오페이의 영상 언어는 지독한 절망이나 우수로 치달지는 않는다. 웃음 유발 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뭘지 모를 잔잔한 희망이 어린 유토피아 같은 게 느껴진다. 현시대 중국의 청년 세대에 대한 낭만적 이해가 없어도 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녀의 작품을 보면 예술이 '보편적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작품에 맞게 집중도를 높이는 배경음악을 훌륭하게 쓸 줄 아는 것도 장점이다.



1 글로벌 유력 미술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차오페이(Cao Fei), 2018년 뒤셀도르프 현대미술관 K21에서도 개인전을 가졌다. photo provided by endermann.com, 2, 3 2018년 말 홍콩의 새로운 복합 문화센터 타이켄 센터(Tai Kwun, Centre for Heritage & Arts)의 현대미술 전시 공간 JC 컨템퍼러리에서도 차오페이의 대규모 개인전(A Hollow in a World too Full)이 열렸다. 개인전 중 감독을 소환한 한신와 아키텍트(Prison Architect)가 실제 감독처럼 꾸민 3층 전시 공간에서 상영했다. Cinematography by Kwan Pun Leung, 4 타이켄 센터의 차오페이 개인전은 관람객들이 올라타다가 충격이 내리라는 '열린 공간에 놓인 컴퓨터 스크린으로 RBM 시티 등 작가의 주요 작품을 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 것을 꼽았다. 5 2018년 선보인 영상 작품 '아시아 온!'(Asia One!)의 한 장면. inkjet print. 같은 해 뉴욕 솔로몬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열린 'One Hand Clapping' 전시에도 소개된 작품, 6 공장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의 행진 속에서 공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노동자들을 담은 '누구의 유토피아인가?'(Whose Utopia?) 시리즈 중 하나인 '내 미래는 꿈이 아니다'(My Future is Not a Dream!)(2006) 중 한 장면. inkjet print, 120x150cm, 7 BMW의 18번째 아티스트 프로젝트로 차오페이가 2017년 첫선을 보인 '증강현실 작품의 화연', 8 차오페이 타이켄 센터의 개인전 큐레이터 필립 타티니(Philip Tinari, 왼쪽), 타이켄 센터 수장 토비아스 베르거(Tobias Berger, 맨 오른쪽)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 9 베이징의 옛날 궁궐을 개조해 만든 차오페이의 스튜디오.



세계적인 문화 예술 플랫폼에서 잇따라 '개인전' 개최, 흐릿한 성장은 '진행 중'
차오페이의 베이징 스튜디오를 방문했던 2015년 겨울의 그 날은 확실히 '길일'이었던 것 같다. 당대의 뛰어난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지는 BMW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1975년 이후 꾸준히 진행해온 BMW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명단에는 알렉산더 칼더, 앤디 워홀, 제프 쿤스 등 쟁쟁한 이름들이 포함돼 있다. 그 대열에 합류한 차오페이의 순서는 '#18'. 이름 인연이 닿았는지, 필자는 차오페이의 BMW 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인 행사에 참가해 다시 그녀를 접하게 됐다. 지난해 3월,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in Hong Kong)이 열린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였다. 2017년 스위스 바젤에서 처음 공개된 테이 아시 아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다수의 관계자와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기술 활용이 일취월장하는 현대미술 생태계에서도 흔치 않은 증강현실(AR)을 접목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대개 아트라고 하면 차체에 감각적인 아트를 입히는 시각적 효과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카본 블랙 색상의 BMW M6 GT3는 그저 무광의 검은색 차로만 보인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페드에 별도로 제작한 AR 전용 앱을 설치한 다음 자동차를 촬영하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형형색색으로 그려지는 '빛의 궤적'이 차량 위를 장식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영적 지혜'를 주제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영적 수행자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BMW 행사장에서 만난 차오페이는 "이번 작품으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솔직히 정말 힘들기도 했다"라고 털어놓았다. 브랜드와의 조율부터 AR을 원하는 방식대로 구현해줄 기술 파트너를 찾는 과정, 앱 개발 등 모든 게 만만치 않은 새로운 시도였으니 그럴 법도 하다. "적어도 당분간은 AR 작업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웃음 짓는 차오페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아 그녀는 그세 뉴욕, 파리, 뒤셀도르프 등 글로벌 문화 예술 도시의 내로라하는 미술관에서 러브콜을 보



내 개인전을 여는 작가로 성장해 있었다. 지난해 말에는 홍콩의 핫한 복합 문화 공간인 타이켄 센터 포 헤리티지 앤드 아트(Tai Kwun, Centre for Heritage & Arts)의 현대미술 전시장인 JC 컨템퍼러리에서 대규모 전시를 가지기도 했는데, 공간과 어우러지도록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작품의 소재와 메시지가 참신하고 매력적이었다. 어두운 밀실이 아니라 공간을 감싸는 커다란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2층의 '열린 공간'에 PC와 스크린을 곳곳에 놓고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요 작품 중에는 아예 음습한 감옥을 떠올리게 하는 전시 장소를 택한 사례도 있다. 타이켄 센터는 중앙경찰서, 빅토리아 감옥 등 옛 정부 건물들을 개조해 조성한 문화 공간인데, 이 같은 배경을 살려 '감옥'을 소재로 한 작품 '프리즌 아키텍트(Prison Architect)'. 관람객 스스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두컴컴한 방에 놓인 철제 침대에 누워 영상 작품을 보는 풍경이 흥미로웠다. 여전히 젊은 아티스트지만 파릇파릇한 '신세대 작가'로 불리기에는 어색하게 차오페이도 어느새 40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창조적 도전을 꾀하는 그녀의 당찬 행보는 여전히 거침없는 듯하다. 올여름 파리의 명소 풍파두 센터에서도 개인전이 예정돼 있다는 그녀의 성장을 앞으로 지켜보고 싶은 이유다. 글: 고영민



timeless Grace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향한 헌사,
여성을 위한 타임리스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에거 르플트르 리베르스 원 듀에토 문 1930
년대에 처음 등장한 여성용 리베르스 모델에서 영감
을 얻은 클래식한 다이얼이 돋보이는 시계. 우아한
직사각형의 스텔이 브러시드 다이얼 위에 곡선형 아
라비아숫자 인덱스와 블루 도피네 핸즈를 장식했다.
케이스를 뒷면으로 반 바퀴 돌리면 은은한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또 다른 다이얼이 등장한다. 6시 방향의
문메이즈 인디케이터에 자리한 마디오브릴 소재의
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며 밤하늘의
신비로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케이스 크기는 40.1 x
20mm. 가격 미정. 문의 02-6905-3998

타파니 아틀라스 2 헨즈 타파니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대표적 컬렉션으로, 뉴욕 본사의 외벽에 설치한 청동
시계의 로마숫자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간결한 인덱스
가 특징이다. 여성 손목에 적합한 직경 31mm의 스텔
케이스를 장착했고, 심플한 실버 다이얼,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 블랙 세틴 스트랩이 아우라져 우아한 통시
에 도달한다.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6시 방향에
작은 날짜창을 닮았다. 전 생애에 걸친 시간의 여정
을 축하한다(Celebrating the Journey Through a
Lifetime)는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특별한 모델. 가
격 미정. 문의 02-547-9488

론진 dolcevita 인생은 아름다워(Dolce Vita)라는
뜻의 이름이 낭만적인 시계. 군더더기 없는 직사각
형 케이스, 클래식한 로마숫자 인덱스, 블루 스텔 헨즈
가 아우라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실용성까지 겸비
해 꾸준한 사랑받았다. 사진 속 모델은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는 빅 사이즈 모델로, 27.7x43.8mm
크기의 스텔 케이스를 장착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
Cal. 595/592로 구동하며 생활 방수가 가능하다.
2백만 원대. 문의 02-6905-3519

오메가 드 빌 트레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헌
정하는 모델로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베젤을 크고 작
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세티나™ 골드 케이스가 아
름답다. 동일한 골드 소재의 로마숫자 인덱스와 핸
즈, 유백색 레커 다이얼, 다이아몬드 세팅 크라운이
아우라져 한층 우아하며, 미려 소재 케이스 백에는
"그녀의 시간 Her Time"이라는 명칭의 특별한 피터
를 인그레이빙했다. 쿼츠 무브먼트인 칼리버 4061
을 장착했으며 케이스 직경은 36mm. 1천 원 원대.
문의 02-511-5797

카르띠에 맨더 드 카르띠에 1980년대에 탄생한 이례
매력적인 여성용 대변하는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
매김한 시계. 유연한 링크 브러시드, 세련된 스퀘
어 케이스를 갖추어 시계인 동시에 화려한 주얼리의
기능까지 겸비했다. 라뉴얼을 거쳐 한층 모던한 디자
인으로 재탄생한 맨더 드 카르띠에 워치는 수십 가지
에 이르는 다양한 사이즈와 소재로 선보이며 특별 또
는 트리플 스트랩을 위한 모델로도 만날 수 있다. 사
진 속 시계는 옐로 골드 소재의 미디엄 사이즈 모델
로, 케이스 크기는 27x37mm. 2천7백 원 원대. 문
의 1566-7277 에디터 **이희미**



SPRING FORWARD.

Energy return with every step.



레츠워크 우먼 번지
CH4903

ROCKPORT®

LET'S WALK

rockportkorea.com 고객센터 080.344.3232 컨셉스토어 02.6137.5100

2019 S/S Trend Report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 형태는 보다 대담해졌고 색은 우아해졌다. 수공예에 집중한 에스닉한 장식과 스포티한 요소를 세련되게 입는 방법을 배워보자. 주목해야 할 트렌드 열 가지를 소개한다.

trend 1_ 50 shades of beige

이토록 다채로운 베이지의 행렬이 또 있었을까? 사막의 건조한 모래와 암석, 바스락거리는 오트밀, 부드러운 크림과 커피, 그리고 시나몬까지. 뉴트럴한 스펙트럼이 눈과 마음에 평안을 선사했다. 디자이너들은 과도한 장식을 배제하고 실용적인 룩을 완성했고, 이는 자연스러움이 지닌 힘을 여실히 증명했다. 맥스마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인 캐멀에서 파생된 어스(earth) 톤의 의상을 선보였고, 파리와 이집트의 만남을 주제로 한 발방은 모래색 스웨이드 의상으로 컬렉션에 실용성을 더했다. 그 밖에 스킨 톤 의상으로 우아함을 전한 디올, 최고의 장인 기술로 다양한 소재가 빛어내는 베이지의 풍부함을 선보인 펜디 컬렉션을 참고하자.

trend 2_ Bleach denim

옷장 속에 유행이 지난 일류딜룩 물 빠진 청 재킷과 청바지가 있다면 마음껏 즐기자. '들칭'이 돌아왔으니, 그러나 부고풍의 디스코 우먼이 되지 않기 위해선 프로엔자 스쿨러와 다올 컬렉션의 도움을 받을 것. 프로엔자 스쿨러는 넉넉한 사이즈의 물 빠진 데님 셔츠 위에 매니시한 테일러드 베스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올은 포멀한 블랙 팬츠에 박시한 데님 재킷을 매치하는 방식으로 쿨과 포멀함의 경계를 이어갔다. 이자벨 마랑과 스텔라 매카트니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 빠진 데님으로 스타일링하는 것도 멋지다. 이때도 넉넉한 실루엣이 핵심. 그리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최대한 공들이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무심하게.

trend 3_ Bow wow

조형적이고 구조적인 리본이 컬렉션에 등장했다. 몸 전체를 감싸는 슈퍼 사이즈라 사랑스럽다가보다는 쿼터리적이다. 쉐린느의 에디 슬리만은 몸 전체를 감싸는 커다란 리본 볼륨 드레스로 컬렉션을 시작하며 테일러링과 볼륨을 강조한 로큰롤 무드를 선보였다. 발렌티노 역시 볼륨을 강조한 퍼프 실루엣을 완성하는 데 특대형 리본을 사용했다. 이번 시즌 리본을 가장 잘 활용한 디자이너는 미우치아 프라다. 프라다 컬렉션에서는 반듯하게 모양을 잡은 리본을 목걸이와 헤어밴드로 활용하고, 미우미우에서는 어깨, 가슴, 허리 등에 매듭처럼 흘러내리는 커다란 리본을 장식했다. 그들로부터 리본을 보다 성숙하고 우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trend 4_ Biker's shorts

포멀한 의상에 스포티한 바이커 쇼츠를 매치하는 룩이 거리에서 린웨이로 무대를 옮겼다. 샤넬, 티에리 뮈글러, 펜디, 스포트막스, 살바토레 페라카모, 스텔라 매카트니 등 모든 컬렉션에서 바이커 쇼츠를 린웨이로 올린 것. 킴 카다시안, 벨라 히디드 등 몸매가 드러나는 룩을 즐기는 셀러브리티들의 스타일링이 한몫했다. 세련된 느낌을 더하기 위해선 앞코가 뾰족한 스틸레토 힐을 신을 것. 하지만 바이커 쇼츠 스타일링의 성공 여부 중 8할은 탄탄한 몸매에 있다. 군살 없는 허벅지와 탄력 있는 힙 라인, 뭉침 없이 매끈한 종아리가 가장 훌륭한 조력자다. 건강한 몸을 위해 땀 흘린 자들에겐 바이커 쇼츠의 영감이 함께할 것이다.

trend 5_ Twist of lace

올봄 디자이너들은 레이스는 로맨틱이라는 진부한 공식 대신 강렬하고 쿨한 방식을 택했다. 여러 방향으로 커팅하고 재조합한 레이스 셔츠를



Colorsuiting_ BOSS

Color suiting_ GUCCI

Rose of face_ SAINT LAURENT

Twist of lace_ TOM FORD

Giant sleeve_ BALMAIN

Biker's shorts_ STELLA MCCARTNEY

선보인 빅토리아 베컴이 가장 영민하게 레이스를 사용한 디자이너. 생로랑과 톰 포드는 각진 어깨의 재킷, 가죽, 그리고 블랙 레이스라는 공식으로 데이스 뉴아르를 완성했다. 진즈앤로지스를 떠올리게 하는 록 스키릿과 축구 유니폼, 복싱을 조합한 알렉산더 왕은 강인한 주제를 패셔너블하게 있는 주요 소재로 레이스를 적극 활용했다. 레이스를 덧댄 축구 유니폼, 비즈로 장식한 레이스 슬립 톱과 조커 팬츠의 매치 등 상상된 것들이 만들어낸 쿨한 조합을 기억하라.

trend 6_ Go away

일상 탈출을 꿈꾸는 디자이너들은 이국적인 해변으로 떠나는 여행을 선택했다. 캘빈클라인의 라프 시몬스는 영화 <조스>에서 영감을 받아 영화 포스터를 프린트한 티셔츠와 스쿠버 슈트를 변형한 스커트를 매치하며 쿼터리적인 면을 강조했다. 실제 서퍼를 컬렉션 무대에 세워 서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에트로, 남성복에서 차용한 슈트 테일러링과 다이내믹한 서핑 웨어를 접목해 세련된 해양 스포츠 룩을 선보인 스포트막스가 대표적. 청형색조로 물든 타이다이 프린트를 선보인 프로엔자 스쿨러, 보헤미안 무드로 이국적인 풍경을 상상하게 하는 클로에의 컬렉션도 어디론가 떠나고픈 마음을 충족시킨다.

trend 7_ Color suiting

Suit up! 슈트는 21세기 여성에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디자이너들은 중성적인 모노톤 슈트에서 벗어나 컬러풀하게 입기를 권한다. 여성의 특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드러내고 싶을 때 레드, 핑크, 라벤더, 옐로우까지 컬러 스펙트럼은 제한이 없다. 다만 컬러 슈트를 입을 때는 발렌시아가, 보스 등이 제안한 것처럼 한 컬러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현실에서는 액세서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누드 톤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컬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살바토레 페라카모가 제시한 것처럼 슈트 안 셔츠에 힘을 주는 방법도 참고할 것.

trend 8_ The Craftsmanship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디자이너들은 여전히 장인 정신의 힘을 믿는다. 그레이서인지 전통 부족의 수공예를 떠올리게 하는 크로세, 마크라메, 프린지, 그리고 조개와 나무 비즈로 컬렉션을 채웠다. JW 앤더슨이 그 대표 주자. 마크라메를 늘어뜨린 소매의 아우터, 크로세 소재의 핸드백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아티스틱 무드를 완성했고, 포츠 1961 역시 마크라메 케이블로 다양한 길감의 의상을 선보이며 시크한 히피 정신을 드러냈다. 과한 듯 보이는 프린지 장식은 매니시한 재킷이나 실루엣이 세련된 팬츠들과 어울려져 모던 쿼터리를 완성했다. 조개가 달린 피시넷 드레스를 선보인 알투자라, 섬세하고 아름다운 크로세 드레스로 에스닉한 무드를 고조시킨 클로에 등도 디지털 위에 장인 정신이 있음을 증명했다.

trend 9_ Giant sleeve

올봄, 여름은 소매가 진검 승부를 벌일 것이다. 풍선처럼 어깨를 둥그렇게 감싸는 볼륨 소매, 주름을 잡아 조형적인 소매, 위로 봉긋 솟은 퍼프소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과장된 소매가 런웨이를 메웠다. 몇 해 전부터 눈에 띄던 각진 파워 숄더 역시 유행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크게 부푼 둥근 형태의 소매가 합세해 거대한 소매 트렌드는 강인함에서 우아한 쪽으로 변화했다. 줄곧 각진 어깨의 의상을 선보여온 발렌시아가와 발방의 컬렉션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발렌티노와 이자벨 마랑 등 파리의 주요 하우스들의 선택이 믿고 소매를 마음껏 부풀려도 좋다. 단, 소매를 과장하는 대신 허리는 날렵하게 할 것.

trend 10_ Long & lean

매 시즌 디자이너들은 신체의 어떤 곳을 강조하고 노출할지, 어떠한 실루엣을 유행시키길 고집한다. 실루엣은 룩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이번 시즌 새롭게 등장한 옷 입는 태도는 바로 기고길게, 그리고 배를 드러내라다. 엉덩이를 덮는 긴 셔츠나 재킷 아래 단추를 열어 배를 살짝 드러내 몸을 보다 길어 보이게 하는 것. 알투자라, 클로에, 파코라반,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이 이러한 실루엣을 주장한다. 클로에가 제안한 것처럼 상의는 꼭 맞게 입고 실루엣이 넉넉한 슬기한 팬츠를 입으면 여유로운 리조트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로에메처럼 니트 소재 카디건을 입으면 현실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트렌드.



50 shades of beige_ FENDI

Go away_ ETRO

Bow wow_ GUCCI

Bow wow_ MIU MIU



Bleach denim_ DIOR

Bleach denim_ STELLA MCCARTNEY

Long & lean_ CHLOÉ

The craftsmanship_ DIOR

a simple Man

복고풍 프린트와 오버사이즈, 그리고 신선한 컬러의 조합. 이번 시즌 남성복은 심플함 속 스타일리시함으로 눈길을 끈다.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그린 V넥 니트 톱 1백44만원,
화이트 셔츠 가격 미정,
체크 팬츠 1백44만원, 블랙 레더
부츠 1백69만원 모두 구찌.

블랙 트렌치코트 2백63만원,
베이지 팬츠 1백16만원,
화이트 스니커즈 99만5천원
모두 보테가 베네타.





블루 코트, 베이시 베스트,
베이지 톱, 아이보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신바토레**
패션가이드, 화이트 스니커즈
99만15천원 보태가 매네다.

레오파드 프린트 잠업 블루종
93만원, 체크 셔츠 74만원,
블랙 팬츠 91만원, 블랙
스니커즈 1백2만원 모두 **버버리**.





블랙 패턴 재킷 2백99만원,
팬츠 1백25만원, 블랙 디트
셔츠 83만원, 블랙 스트랩
샌들 99만원 모두 렌디.

퍼플 롱 파카, 지퍼 장식
티셔츠, 그레이 팬츠,
화이트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체크 더블 재킷 5백75만원,
이오보리 니트 베스트
1백27천5천원, 브라운 조거 팬츠
3백28만원, 블루 & 옐로 스니커즈
가격 미정 모두 에르메시도 재나.



브라운 코트 3백82만원,
올라워 프린트 리플렉 84만원,
블랙 팬츠 가격 미정, 데이지
리퍼 86만원, 화이트 미니백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모델 Arnis Cielava
헤어 & 메이크업 Katsuyoshi Kojima
스타일리스트 재원석



구찌 1577-1921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살바토레 페라가모 02-2140-9664
버버리 02-3485-6600
펜디 02-2066-9023
에르메스 02-542-6622
에르메시도 재나 02-518-0285
프라다 02-3442-1830



칼라를 탈착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의 코튼 소재 트랜치코트
1백68만원 만스이라.



러플이 달린 크로스 코튼
소재 트랜치코트 2백29만원
스텔라 매카트니.

Trench lover

지적인 분위기와 실용적인 면모를 갖춘 트랜치코트,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트랜치코트를 제대로 입을 수 있는 때다.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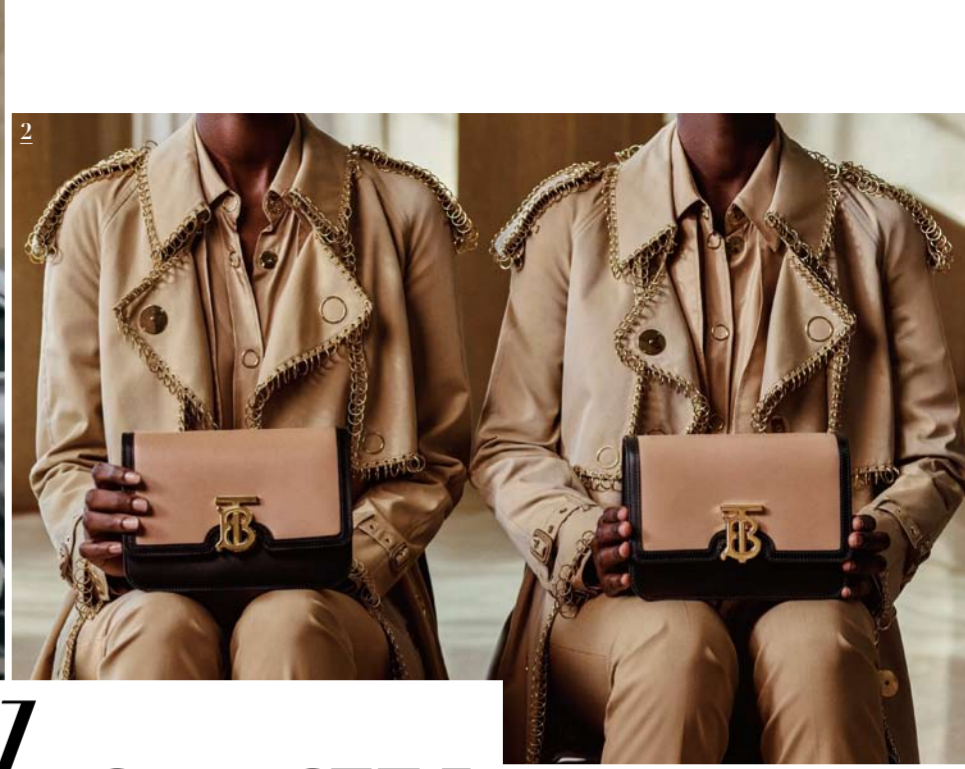
2월 10일 10시



트릴 소재 더블브레스트 트랜치코트
70만원대 풀로 힐프루언.



테코노 코튼 소재의 오버사이즈
트랜치코트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the new It Bag

리카르도 티시를 영입한 이후부터 버버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카이브에 보다 충실하고 현대적으로 변화한 버버리의 새로운 모노그램과 첫 번째 시그니처 백을 소개한다. 바로 'TB'다.

버버리의 새로운 수장과 뉴 모노그램

리카르도 티시가 수장을 맡은 버버리. 그의 첫 번째 컬렉션은 패션 관계자뿐 아니라 버버리의 팬, 리카르도 티시 팬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버버리의 브리시 전통성과 리카르도 티시의 고딕식 클래식함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모두 고민했다. 티시가 버버리 하우스에 입성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카이브를 살펴 DNA를 분석해 현대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하우스 로고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는 청담자 토머스 버버리의 이니셜 T와 B를 결합해 새로운 모노그램을 선보였다. 이는 티시와 이트 디렉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피터 사빌(Peter Saville)이 함께 한 결과물로, 뉴 버버리 클래식스를 대표하는 새로운 얼굴이다. 새로운 모노그램은 지난 2018년 9월, 리카르도 티시의 첫 번째 런웨이 컬렉션 '킹덤(Kingdom)'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스카프 위 그래픽적인 프린트로, 기본적인 사각형 박스 형태의 클래식한 기법의 잠금장치로, TB 모노그램은 날렵하고 유려한 폰트 실루엣으로 자신감이 넘쳐 보였고, 그 자체로는 버버리의 클래식한 스타일 유산을 드러냈다. 동시에 새로운 걸친 모던에선 티시의 고딕 성향도 느껴졌다. 로고는 버버리가 앞으로 지향할 모든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다. 간결하고 모던하게.

잇 백의 계보를 잇는 'TB 백'

TB 모노그램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버버리의 새로운 시그니처 백인 TB 백이다. TB 백은 기본적인 사각형 박스 타입의 클래식한 디자인에 TB 모노그램 잠금장치를 더해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와 컬러, 디테일을 변형해 다양한 스타일로 변주할 수 있다. 우아한 레이디 룩과 캐주얼한 스트리트 무드로 나누어 1백34벌의 방대한 의상을 쏟아낸 컬렉션 런웨이에서 TB 백은 어떤 스타일이나 무리 없이 높아지며 단번에 패션 인사이더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기본 크로스 보디 스타일의 가죽 스트랩, 모델의 허리에 두른 체인 스트랩의 범 백 버전, 무심하게 올려 올려 보이는 안벨로프 클러치 등 다양한 형태의 TB 백을 만나볼 수 있다. TB 백은 출중한 조각이 특징인 프랑시스 카프 레더를 사용한다. 또 이탈리아의 가죽 공방에서 오랜 시간 카롬 태닝을 거쳐 가죽의 색이 깊고 풍부하며, 부드러운 광택이 감돈다. 커튼 한 가죽 가장자리는 핸드 페인팅으로 마감하고, TB 로고 하드 웨어 역시 수작업으로 부착한다. 이중 수납이 가능한 입체적이고 실용적인 내부도 모두 가죽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럽다. 색상 또한 블랙과 울트 브라운 등 기본 컬러부터 크림스 레드, 로즈 베이지 등 화사한 봄 컬러, 또는 라이트 케말과 초크 화이트, 페일 블루와 크림스 레드를 함께 사용한 투톤 컬러도 출시된다. TB 백은 잇 백의 계보를 새롭게 이을 것임이 분명하다. 출시와 동시에 셀리와 블랙핑크 지수, 최지우와 톰 모델 최소라를 비롯해 이리나 사크, 자지 하디스 등 할리우드 패션 셀러브리티에 이르기까지, 이미 국내외 셀러브리티들이 곳곳에서 TB 백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니까. 2019 S/S 시즌 잇 백으로 떠오른 버버리 TB 백을 주목하라. 문의 버버리 고객센터(080-700-8800)



8

1 블랙 TB 백은 클래식 룩과 스트리트 룩 이데아를 잘 어울린다. 2 버버리 아카이브를 재해석한 투톤 TB 백. 3 버버리 2019 S/S 컬렉션 런웨이 룩과 투톤 TB 백을 함께 매치한 실리. 4 클래식한 형태에 토마스 버버리 모노그램 잠금장치를 더한 버버리의 뉴 백. TB. 5 체인 TB 백을 잇스런데 소화한 톰 모델 최소라. 6 울트 브라운 색상의 TB 백을 착용한 모델 이리나 사크. 7 컬러 대비를 이루는 TB 백. 8 지난 2019 S/S 컬렉션 런웨이에선 브리시 핑크 룩과 로고 프린트 TB 백을 매치했다.



2

● sponsored by BURBERRY

editor's Pick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스타일 조선크림>가 제안하는 뷰티 신제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르네클레르 포터사 두피 세럼** 번들키리코 오일리판 느낌을 싫어하는 에디터에게 딱 맞는 제품. 기름지거나 끈적이지 않는 것은 물론 잔여물이 남지 않고 멘톨의 상쾌한 느낌이 강해 더 마음에 든다. 퇴근 후 매일 저녁 사용하고 있는데, 머릿 상태에서 두피 곳곳에 뿌리고 손끝으로 마사지 해주면 끝. 모발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의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향구지 입아도 되는 것도 큰 장점이다. 100ml 3만2천원. 문의 1899-4802. *by 에디터 장라윤*

블리 1803 더블 포이드 콘크리트 케이스가 예뻐 거품에서 거셀 때부터 시선을 모은다. 브랜드의 시그처 제품인 포이드 콘크리트 핸드크림의 촉촉한 보습력에 일곱 가지 에센셜 오일을 더해 피부 정화와 피싱 효과까지 겸비한 제품. 손바닥은 가로 따뜻하게 바벼 녹여준 후 사용하면 된다. 신포한 오렌지 향. 문의 02-511-3439. *by 에디터 장라윤*

해라 블랙 파운데이션 24시간 무너짐 없이 커버한다는 홍보 문구가 단번에 이해될 만큼 뛰어난 커버력과 밀착력에 놀랐다. 소량만 발랐는데도 손잡이에 피부를 빈틈없이 끈끈하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 2천 명이 이르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만든 총 12가지 컬러 세트로 출시한다. 피부색에 꼭 맞는 제품을 찾는 것도 좋을 듯. 35ml 6만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이혜미*

얇아너 인텐스 LED 마스크 최근 화제 인상 장점을 뽐낸 LED 마스크로, 얼굴과 두피를 동시에 또는 따로 케어할 수 있다. 배타리를 분체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로 충전하도록 설계해 착용감을 높이는 동시에 더욱 풍부한 양의 LED 빛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도록 했다. 99만원. 문의 02-3281-7700. *by 에디터 이혜미*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이스트로 #521 피오나 아르마니를 대표하는 립 마이스트로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한 여섯 가지 리미티드 스프레이 샷리 컬러 중 비바드한 핑크 색상이 매력적인 제품. 얼굴색을 화사해 보이도록 하는 뛰어난 발색은 물론, 비바드는 순조로운 촉촉하지만 매트하고 보습보습하게 마무리되는 텍스처 역시 매력적이다. 5ml 4만2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혜미*

미스터 바버리 인디고 오 두왈렛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신선하고 가벼운 향이 영국 어느 해변가의 상쾌한 공기를 연상시킨다. 뿌리는 순조로운 레몬, 로즈게릴, 바이올렛 잎 등의 향이 섞인 활기차고 에너제틱한 정향 느낌이 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색 숲 같은 오크 노트의 진중한 자연 느낌이 강해진다. 남성용 물론 여성이 사용해도 무방할 듯. 조향사 프란시스 커장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했다. 100ml 13만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장라윤*

룩사몽 로즈 파퓌드 슝 생화의 향기를 맡는 듯 싱그럽고 신포한 로즈 향기가 인상적이다. 자연만 맡고 싶어하는 은은한 향기를 사랑스러운 핑크 & 골드 컬러 패키지가, 그리고 비누에 새긴 상쾌한 로즈 무늬가 아름다워 선물로도 제격일 듯. 식물성 포밍 베이스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클렌징할 수 있다. 50g 6천원. 문의 02-2054-0500. *by 에디터 이혜미*

랑팔라투르 진품 파마진 클렌징 젤 피부를 진정시키는 유효 성분 덕분에 배아와 울라브 오일을 함유했다. 생리활성인 pH 덕분에 매일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부인과 테스트도 완료했고, 위생한 성분은 모두 배제해 임신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더 믿음이 간다. 인공 향료도 첨가하지 않은 무향이다. 50ml 3만9천원. 문의 080-363-5454. *by 에디터 장라윤*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펄 틴트 베이징 스킨케어 작년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해 완판된 기록한 제품. 은은하고 부드러운 펄이 하루 종일 유지되는데, 텍스처도 가벼워 수시로 덧발라도 답답하거나 끈적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건조하고 갈라지는 입술 보호에 탁월해 주머니 속에 넣어 매일매일 활용하고 있다. 2.3g 4만2천원. 문의 02-3440-2781. *by 에디터 장라윤*

샤넬 르 블랑 크림 펄스 라이트 크리에이터 크림 볼과 어름살이던 자주 찾게 되는 화이트닝 제품 중 뛰어난 다크 스폿 개선과 모스카리아징 효과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이에게 추천한다. 풍성하고 크리미한 제형 덕분에 비바드는 순간 피부 표면에 매끄러운 보호막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든다. 50g 15만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이혜미*

시슬리 유스 안티폴루션 팩트, 청소 세제, 전자 기기의 블루라이트, 한층 더으로 실내 공기 오염보다 5~10배 더 많은 오염을 막아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런 모든 형태의 오염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제품으로, 가볍고 신포한 제형에도 비바드는 즉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기분 좋게 맑게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인삼, 카뮈, 매실 씨, 강낭콩 추출물이 다양한 작용을 해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한다. 40ml 21만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장라윤*

클레르보 보네 인텐스 아이 컨투어 크림 수프림 건강한 생령력으로 고신체대의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는 아이리스의 성분은 담이 눈가 피부의 주요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품. 개리자오르는 유 수분을 두루 갖춘 아이크림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은 딱 적당한 텍스처를 갖추었다. 클레르보 아이 마사지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 또한 특별하다. 15ml 32만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혜미*

나스 퍼브 드림 컬렉션 페이스 필라트 로스트 인 리스터 네 가지 영양 세대의 아예 조화를 이루는 하이리터, 블러시까지 함께 구성한 필라트.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자주 사용할 만한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 구성이 마음에 든다. 직접 발라보면 활인 자연스러운 컬러감과 은은한 시바림을 느낄 수 있다. 아이세도 1.2g×4, 하이리터 & 블러시 3.8g 6만5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혜미*



부세론 새로운 광고 캠페인 공개 올리버 하들리 퍼처 감독의 자유 아래 메종의 상징인 자유를 전하는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혼란 주연의 착용 방식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방동 광장 첫 번째 주얼리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미지 속 인드레이 디아코누는 캐시미어 스웨터와 하이 주얼리를 매치해 '스스로 자유를 만들고 우리는 여성을 다채롭게 표현했다. 영상 속 작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사 초 스킨이 디자인했다. 문의 02-6905-3322

JEWEL&WATCH



반클리프 아펠 투 버터플라이 컬렉션 메종의 상징인 나비를 모티브로 한 버터플라이 컬렉션의 새로운 주얼리. 블루 컬러 라피드스칼리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의 대비, 기울어진 나비의 실루엣의 비대칭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문의 00798-852-16123



몽블랑 스타 레거시 메타모포시스 리미티드 에디션 8 마네리의 1백61년 유산에 대한 헌사로 제작한 시계. 케이스 측면에 위치한 슬라이딩 레버를 통해 12시 방향의 투르비용, 6시 방향의 자루 모양 디스플레이를 저장할 수 있다. 어느 페이스를 선택하든 시계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해 실용적이다. 문의 02-1670-4810



블랑팡 발라데 우먼 데이트 문페이스 셀프와인딩 913QL P 무브먼트로 문페이스 컬렉션을 구현하는 케이스 지름 33mm 사이즈의 여성 시계를 소개한다. 빨간색 핸즈로 날짜를 알릴 수 있으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포인트를 줬다. 문페이스로 장식한 앙증맞은 달이 눈에 띈다. 문의 02-3213-2261

IWC 포르투게저 오토매틱 블루 컬러 나뭇잎 모양 핸즈와 아틀라네틱 인덱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파이어 글라스 케이스 백을 통해 자체 제작 52010 칼리버의 정교한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풀과 휠, 로터 베어링까지 세라믹으로 제작해 내구성을 높였다. 문의 02-3440-5876

SHOWROOM

토즈

토즈 2019 F/W 우먼 컬렉션 이탈리아 감성을 우아하게 풀어낸 2019 우먼 컬렉션을 선보인다. 트랜치코트와 블레이저, 스카트 등 모두 니퍼 가죽을 사용해 멋스럽다. 문의 02-3438-6008

릭포트 레트워드 우먼 번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기념해 워킹 슈즈를 출시한다. 슬림한 원형의 편칭 디테일의 외관이 돋보이며 오소라이트 깔창을 사용해 편안함을 선사한다. 화이트와 핑크, 2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6137-5100

레오나드 오기 드 프린

레오나드

트 화이트 바탕에 오카드 프린트를 더해 멋스러운 블루와 스와와 청량한 블루 컬러의 루스 핏 팬츠가 세련된 룩을 완성한다. 문의 02-3449-5163

릭포트 레트워드 우먼 번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기념해 워킹 슈즈를 출시한다. 슬림한 원형의 편칭 디테일의 외관이 돋보이며 오소라이트 깔창을 사용해 편안함을 선사한다. 화이트와 핑크, 2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6137-5100

레오나드 오기 드 프린

휴고 보스

릭포트 레트워드 우먼 번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기념해 워킹 슈즈를 출시한다. 슬림한 원형의 편칭 디테일의 외관이 돋보이며 오소라이트 깔창을 사용해 편안함을 선사한다. 화이트와 핑크, 2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6137-5100

레오나드 오기 드 프린

바버리

릭포트 레트워드 우먼 번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기념해 워킹 슈즈를 출시한다. 슬림한 원형의 편칭 디테일의 외관이 돋보이며 오소라이트 깔창을 사용해 편안함을 선사한다. 화이트와 핑크, 2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6137-5100

레오나드 오기 드 프린

릭포트

릭포트

THE LEGEND AMONG ICONS.



Portugieser Perpetual Calendar.
Ref.5033: 달은 언제나 신비스러운 특별한 매력
으로 우리를 매료시켜왔습니다. 포르투기저 퍼페
추얼 캘린더 에서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달의
알 듯 말 듯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데, 문페이스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달의 형상이 보는 이들을
이 시계에 깊게 빠져들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아한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는 이
문페이스 디스플레이의 매력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걸작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네요.

IWC. ENGINEERED FOR MEN.

Mechanical movement, Pellaton automatic winding,
IWC-manufactured 52610 calibre, 7-day power
reserve, Power reserve display, Perpetual calendar
with displays for the date, day, month, year in four
digits and perpetual moon phase, Sapphire glass,
See-through sapphire-glass back, Water resistant
3 bar, Diameter 44.2 mm, Alligator leather strap by
Santoni



Explore the
IWC Portugieser
collection

갤러리아 EAST · 롯데 월드타워 · 에비뉴엘 · 신세계 영등포 · 대구 신세계 · 현대 무역센터 · 현대 본점 · 현대 판교
대표전화 +82 2 3440 5876 WWW.IWC.COM/KO

IWC
SCHAFFHAUSEN